

# 시조시인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 영월서 기념사업 '다채' ... 24일 기념시비 제막

“꽃잎 지는 프락/ 연두빛 하늘이 흐른다/ 세월처럼 도는 旋律(선율)/ 한결 저녁은 고요로워/ 그 누구 치맛 자락이 스칠 것만 같은 밤...”(김어수 시인의 '봄비')

한국현대시조시인협회를 창설한 시조시인이자 부산 금정중학교 교장을 지낸 교육자, 조계종 초대 중앙상임포교사로 활동했던 영담(影潭) 김어수(1909~1985) 법사. 법어사로 출가해 25년간 수행한 스님이자 문인, 포교사로 불교계 안팎에서 큰 족적을 남긴 김어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생지인 영월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영월군(군수 박진규)과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년균), 한국시조시인협회(회장 한복순)는 공동으로 10월 24일 오후 1시 영월읍 직동리 생가 터에서 유가족과 지역주민, 불교계, 문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어수 탄생 100주년 기념 시비(詩碑) 제막 및 김어수공원 표지석 설치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김어수시인탄생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어수 작품 및 유작전시회(시회전 및 서예전), 김어수 문학강연, 김어수 시집 발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도 펼친다.

김어수 시인의 제자인 추진위원장 상욱 스님(남양주 불암사)은 “김어수 선생의 시 '봄비'를 새긴 시비를 다시 세우고(기존 시비는 시조 율격에 맞지 않아 철거함) 김어수공원을 조성하는 등 그분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영월군민과 문인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따른다면 향후 추진할 등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대외협력위원인 문태성 시인은 “이번 기념사업은 '200년 김삿갓'과 '100년 김어수'를 보유한

시인의 고장 영월이 문화의 중심지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어수 시인을 '제2의 만해'로 선양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1909년 1월 4일 강원도 영월 상동면에서 태어난 김어수 시인의 본명은 소석(素石), 어수(魚水)는 법명이다. 1932년 6월 조선일보에 '조시(弔詩)'를 발표해 등단, 24세에 조선불교청년동맹 문화부장으로 항일운동을 해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37년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재학생 시절 <안락국태자경>을 번역하고 교우지 <클비니>를 발간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으며 <회귀선의 꽃구름> <이 집은 향기를 어이하리> 등 시집을 비롯해 수필,



영담 김어수 법사.

경전번역 등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1945년부터 교직생활을 한 시인은 1969년 11월 무진장 스님, 법성 스님, 선진규 법사와 함께 초대 중앙상임포교사에 임명돼 포교사로서 맹활약했다. 1980년 제5회 노산시조문학상을 수상하고, 1983년 한국현대시조시인협회 초대회장에 취임했으며, 1985년 1월 7일 입적했다. 김성우 기자

## 추석, 나눔의 자비행 신흥사복지재단

설악산 신흥사 산하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 이하 복지재단)이 추석을 맞아 지역민들과 나눔과 자비행을 펼쳤다.

복지재단은 9월 30일 속초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이웃들에게 5000여 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자비 나누기=행복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각 수혜자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과일,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한편, 6월부터 설악산 신흥사 주지소임을 맡은 우송 스님은 취임식 당일 지역민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8월부터는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구입 입장료를 면제해 신흥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도록 하고 있다.

우송 스님은 “종교를 떠나 속초시민들의 함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참다운 복지불사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33) 636-7044 이극래 강원지사장

## 개산대재 불교문화축제로 거듭나

###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금산사... 음악회 전시회 수계법회 등

사찰을 창건해 처음 문을 연 개산(開山)을 기념해 열리는 개산대재가 전국에서 잇달라 열려 눈길을 끈다. 대구 동화사 부산 범어사 김제 금산사 등 전국 사찰에서 잇달아 열리는 개산대재는 예년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어우러진 불교문화축제로 거듭났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051-508-3122)는 개산 1331년 기념 개산문예대전을 10월 10~11일 개최한다. 행사는 10일 오후 3시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 대웅전 앞에서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11일에는 지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단청문양 모사도 특별전도 지역민들을 기다린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055-934-3000)는 13일 대적광전에서 제1207주년 개산대재와 대례재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사찰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한 법회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6~31일 김양수 화백의 선화전 '달마가 꽃을 들었다' 특별전을 비롯해 이형준 여행 사진작가의 세계문화유산사진전(13~31일), 광해군 복식전 '서원'(17~11월 22일)이 열린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은, 055-985-7889)는 17일 제151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보살계 수계식과 만동불사 점등식도 봉행된다.

개산대재에 앞서 10~16일에는 통일대불전에서 '계·정·혜 삼학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주제로 7인 고승초청대법회가 열린다. 법회에는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묘려 스님, 제주 약전사 회주 해인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前 포교원장 정락 스님,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하동 칠불암 회주 통광 스님이 법문한다. 조종섭 기자

같은 날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다종이 인형과 함께하는 고승열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72-7000)는 24~26일 개산대재가 열린다. 25일 오후 1시 부도밭에서 한차례 봉행으로 시작되며, 26일 오전 11시 기념 법요식을 봉행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현근)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었던 해각 스님 관련 유품을 한 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24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120여 점의 유품을 만날 수 있다.

또,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062-782-0103)는 26일 오전 11시 개산대재를 맞아 역대 선사 대례제를 봉행한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형, 063-548-4441)도 11월 6일 제 1410주년 개산대재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연다. 해철 충청지사장

## 마음수련원 개원 25일, 묘적암

팔공산 묘적암(주지 성인)은 10월 25일 오전 11시 불교마음수련원 개원 대례법회를 봉행한다.

월탄 스님을 초청해 열리는 행사에서는 명상다례법, 기도차, 만다라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불교마음수련원은 면벽, 좌선, 묵언, 예불, 달빛걷기 등을 통해 자기성찰 근원적인 문제해결, 근본원인치료를 함으로써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 건립됐다. (011)9371-8080

손법천 대구지사장

## 단기출가학교 입학 한국불교대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학)는 10월 5일 단기출가학교 6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직장인, 학생 등 재가자 7명이 삭발과 수계식을 갖고 예비 승려로서 보름간의 단기출가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단기출가 기간 한국불교대학 부설 캠프도장에 머물며 기초 불교공부, 참선, 묵묵 염불 습의 등을 익히게 된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보현사 삼성각 낙성

태고종 보현사(주지 원봉)는 10월 8일 오전 10시 법제사 건립 및 삼성각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원봉장학회는 21명의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혜초 종정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 충북교구 총무원장 원해 스님, 원봉문도회 스님 등

과 이대원 충북도회의회장,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남상우 청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해철 충청지사장

## 세종 17왕자·단종 태 봉안된 곳 성주 선석사, 9월 25일 '태문화 학술세미나'

최근 조선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이를 두고 눈을 지키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둔 원찰(願刹)의 원력 덕분이라는 말도 나온다. 선왕(先王)을 추모하고 능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원찰은 능침사(陵寢寺)로도 불리지만, 정작 임금의 태(胎)를 모시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태방 수호사찰'이 있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김현 직지사는 정종의 태방 수호사찰이었다. 예전 명봉사와 영천 은해사, 보은 속리사는 각각 문종 인종 순조의 태를 모시고 이를 수호하는 사찰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의 태방 수호사찰 성주 선석사(주지 해남)가 9월 25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태실법당 준공 기념 태(胎) 문화



9월 25일 성주 선석사에서 봉행된 태실법당 낙성식 테이프 컷팅 모습.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행사에서는 이덕주 성주향토사연구회장이 '조선시대 장태문화'를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불교의 태아관'을, 황옥자 동국대 교수가 '한국인의 임신 태교 출산에 관한 발달사'를 발표했다.

태실은 태(胎)를 묻은 곳이다. 제대할 보관시설 등이 없던 과거에는 가정에서 태를 처리해야 했고, '삼가든다'는 말로 표현되는 행위를 통해 태를 묻어 처리했다. 과거 민

가에서는 태를 불에 태우거나(燒胎),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水中棄胎), 일부분을 말려 보관하거나(乾胎), 드물게는 술에 담겨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조선왕실에서는 왕자의 태자 건립 및 삼성각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원봉장학회는 21명의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덕주 회장은 “성주에는 조선 태종의 태가 봉안된 곳”이라며 “전국에서 많은 태실이 한 곳에 모이고 보존이 잘된 곳도 성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동화사 말사인 선석사는 신라 효소왕 1년(692)에 의상 대사가 화엄

10찰 중 하나로 신광사(神光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고려 공민왕 10년(1361) 나옹 대사가 현재 위치로 옮겼다. 절터를 닦던 중 큰 바위가 나와 '터 뒤를 선(禪)'자를 넣어 절 이름을 선석사라 했다. 이후 조선시대 세종대왕자 태실과 200m 거리에 위치해 왕자들의 태실을 수호하는 사찰로 지정됐다.

이 회장은 “태방 수호사찰인 선석사에 현대식 태실법당을 마련해 태를 봉안하게 된 것은 병원에서 처리하던 태를 불전에 안치하고 기도를

통해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오형근 명예교수는 아뢰야시를 중심으로 불교의 태아관에 대해 조명했다. 오 명예교수는 “태아는 단독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유 또는 아뢰야시(아미타의 인연과 화합해 출생하는 것이) 이를 삼사화합(三事和合)이라 말한다”고 설명했다.

황옥자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의 태교법을 비롯해 팔정도 태교법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선석사에서 태실법당 낙성식 및 자모관음보살 점안식이 봉행됐다. 행사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대구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 이창우 성주군수, 백인호 성주군의회 의장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허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태는 어머니와 아기를 잇는 생명의 고리요, 아기의 뿌리요 무한가능성의 근원”이라며 “태실법당이 사바에 장엄돼 기도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무한의 가능성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남 스님은 인사말에서 “태실이 한 곳에 모이고 보존이 되도록 태실법당을 건립했다”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 근육통증

으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골격을 바로잡아 스스로 병 고치는

# 정골요법

일본진출!

## 쑤시고 걸리는 근육통증 증상완화 - 파워봉 - 13

근육통증이 있는 부위에 지그시 눌러 주시면 연구자석에서 나오는 자력에 의해 근육통이 완화 됩니다.

의기기제조업허가 제2120호  
품목허가 07-87호

— 광고의밀 —  
2009-GNI-22-0156 ▲ 파워봉 - 13

특별보급가 49,000원

※ 방문하시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효능, 효과를 확인 하신 후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치유법!

죽을병에 걸려 병원에서 쫓겨난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나서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 건강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누워서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 「자가치유법」 대공개!

## 골반, 척추, 디스크, 좌골, 오십견

견비통, 상기증, 갑상선, 위장병, 호흡곤란, 당뇨,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혈압, 고관절 수족냉증, 변비, 오장육부의 체온을 높여서 성인병 고치는 놀라운 기가재 운동 공개!

복부에 들어있는 만병의 근원 "적취" 쉽게 푸는법 수록!

누구나 쉽게 배우는 통증치유법으로 가족건강 지킨다.

◎ 생체에너지를 강화시키고 몸속에 냉기(독소)를 확 빼내는 법 수록  
◎ 노인들의 퇴행성질환 돈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치는 법  
◎ 양다리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쉬운 다리교정법 수록

이제부 저음(250원) 값10,000원

★ 단체지도한 곳  
· 국립경향대학교  
· 중앙경찰학교  
· 삼성중화화학(주)  
· 한국중공업(주)  
· 육군73사단  
· 한술개발(주)  
· 독일동서의학병원  
임상실험 인정증 획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주소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